

오이솔루션 추안구 대표

이코노 & 비즈 피플

효성그룹 조현상 전무

“아시아·태평양으로 수출시장 확대”

세계 사이언스파크 총회 아시아어워드대상 수상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내 광주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인 (주)오이솔루션 (대표이사 박용관·추안구)이 최근 호주에서 열린 세계 사이언스파크 총회에서 아시아어워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기술중소기업 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업체간 유기적 관계를 통해 성장한 모범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오이솔루션은 아시아 10개 업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총회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추안구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국·유럽에 치중됐던 해외시장을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이솔루션은 초고속 광통신 핵심 모듈

전용 생산업체다. 추 사장은 미국 신시네티대 물리학 박사로서, 삼성종합기술원과 삼성전자 등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광통신 모듈 권위자다. 광통신부품시장 하락으로 삼성전자 광사업부가 해체되자 지난 2003년 동료 8명과 오이솔루션을 창업했다. 창업 당시 컨테이너 2개를 빌려 출발했으며, 초창기부터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다. 오이솔루션은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2005년 8월 광주테크노파크 LED/LD패키지센터 시설 및 장비활용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북미·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LA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국내 최초로 백내광가입자망용 1.25G



이더넷 수동형 광네트워크용 모듈을 출시했고 1기가바이트급 광수신 모듈도 개발했다. 정보를 1초당 10 Gbps급까지 전송할 수 있는 양방향 광통신모듈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매출이 143억원에서 올해 360억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매출 1000억원 고용 250명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광주 광통신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세계 대표하는 40인의 젊은 리더에

한국인 유일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글로벌리더’ 선정

효성그룹 조현상(40) 전무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세계경제포럼(WEF)의 ‘차세대 글로벌리더(Young Global Leader, YGL)’에 선정됐다. 조 전무는 G20국가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를 대표하는 40인의 젊은 리더들로 구성된 ‘YGL G20 이니셔티브’에서 활동하게 된다. ‘YGL G20 이니셔티브’는 세계경제포럼의 차세대 글로벌리더 중 특별히 선별된 멤버들로 구성돼 있으며, 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YGL G20 이니셔티브’ 멤버에는 페브리스 세이만 루테시아캐피탈 사장, 지미 웨일즈 위키피디아 창립자, 실바나 코흐메린 유

럽외 부의장, 마틴 로스태우 아르헨티나 전직 재무장관, 케빈 루 세계은행 최고재무관리자(CFO), 알레시아 모스카 이탈리아 국회의원, 니콜라이 프리야니쉬니코프 러시아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프랑수아 자비에 드 말만 골드만삭스 상무, 엘레나 리 CNN 아시아편집장 등이 포함됐다. 조 전무는 오는 6~7일 서울에서 열리는 ‘YGL G20 이니셔티브’ 첫번째 행사에 참여해 멤버들과 함께 국내 지도자들을 만나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들의 목소리를 국가 지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 전무는 경북고와 연세대를 거쳐 미국 브라운



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베인&컴퍼니의 도쿄 및 서울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 효성에 입사, 현재 전략본부 전무로 그룹전략과 경영 컨설턴트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조 전무는 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 겸 서울지사를 역임한 김여송(59) 주식회사 광림 대표이사의 사위이기도 하다. 조 전무의 아내인 김유영(30)씨는 비올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백화점 쌀쌀한 날씨 덕봤다

11월 매출 11~13% 증가...이달도 이어질 듯

쌀쌀한 날씨 덕분에 지역 백화점들이 11월에도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난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했다. 본격적으로 겨울추위가 시작되면서 의류가 잘 팔린다 백화점 별로 창립행사나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겨울잡화세일 등으로 인해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쌀쌀한 날씨 영향으로 코트 등 겨울의류를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캐주얼 23%, 겨울용 소품 23%, 아웃도어 18%, 여성정장 17%, 아동

10% 등 의류부문 매출이 골고루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1% 늘었다. 겨울철 보습용 화장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매출이 12% 가량 증가했고, 외투 판매량이 늘면서 골프·아웃도어(19%), 캐주얼(10%), 아동·유아(10%) 등 의류부문 매출이 상승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12월에도 겨울 세일과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가 이어져 매출 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숙취해소엔 대구가 딱이죠”

1일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연말을 앞두고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숙취해소에 효과가 좋은 대구를 선보이고 있다. 겨울철 제철 생선인 대구는 맛이 담백하고 음식 후 숙취해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1일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연말을 앞두고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숙취해소에 효과가 좋은 대구를 선보이고 있다. 겨울철 제철 생선인 대구는 맛이 담백하고 음식 후 숙취해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 소비자물가 13개월만에 하락

신선식품은 여전히 상승세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은 1년 사이 2~4배 가량 뛰어들어 등 신선식품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1월 중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6(2005년=100)으로 전달보다 1.3%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0.4% 하락을 기록한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0% 올라 지난 9월 3.6% 상승 이후 2개월 만에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달보다 2.2% 하락했고, 물가상승을 이끌었던

신선식품지수도 전달보다 12.7%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하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1.8%나 급등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추가 192.3%, 무가 176.7%, 토마토 108.2% 증가했으며, 마늘(102.5%), 오징어(90.4%), 수박(89.3%), 파(81.9%), 참외(58.1%), 감자(55.8%) 등 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 117.6으로 전달보다 0.7%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전달보다 1.3% 하락, 신선식품지수등 12.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생활물가지수는 3.9%, 신선식품지수는 33.2%나 올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양동시장 4일 ‘고객감사의 날’ 운영

양동시장이 오는 4일 오전 10부터 시장과 북계상가 사이 일방통행로(구 6번 버스길)에서 ‘광주 전통시장 고객감사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일환인 ‘양동시장 토요일’ 특별 행사로, 양동산업용품시장 체험공방, 양동수산시장 만물전, 양동시장부녀회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된다. 이날 양동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란 500란’, ‘김 500숙’, ‘김치 1000포기’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비롯해 ‘시장유랑단’의 문화공연도 함께 열린다. 또 대인예술시장과 무등 하하시장에서 전시부스를 열고 시장홍보에 나선다. 한편 이날 판매 수익금의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연탄’ 1만장을 전달하는데 쓰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법인카드 결제 건수 늘고 금액은 줄어

기업들이 법인카드를 결제한 건수는 늘었지만 이용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3억58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7900만건)보다 9.6% 증가했다. 법인카드 수도 지난해 9월 464만 3000장에서 올해 9월 543만9000장으로 17.1% 늘었다. 그러나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97조8453억원에서 올해 3분기까지는 91조7845억원으로 오히려 6.2% 감소했다.

최근 수년간 추이를 봐도 법인카드 이용 건수의 증가 폭은 이용금액 증가 폭보다 크게 작은 편이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가 카드 대안이 발생한 2003년 1억3441만건에서 지난해 3억7346만건으로 178% 늘어난 동안 이용금액은 100조2170억원에서 132조1419억원으로 3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경기절감 차원으로 법인카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연체율 1.3% 전달보다 0.06% 상승

금융감독원은 10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이 1.30%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75%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1.99%로 0.13%포인트 상승했으나 대기업 연체율은 0.70%로 0.15%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73%로 0.05%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상승한 0.63%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말(9월말) 다음달은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중소기업 대출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가 증가해 연체율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Footer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including phone numbers (1588-8499, 021538-9388) and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ISO, GMP).